

▶ 인쇄하기

영천저수지 환경정화, 주민과 함께 물 살리기 실천

- 보성지사 주도, 지역 주민과 협력해 수질 개선 나서 맑은 물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삶의 질 향상의 출발점 환경 중심 농촌 구현에 지역사회 참여로 의미 더해

2025.05.13 16:56 입력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지난 12일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저수지에서 '내 고향 물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농업의 생명선인 물을 지키기 위한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과 공사 직원, 자원봉사자가 힘을 합쳐 저수지 일대를 정비하며 진행됐다.

이번 정화 활동은 영천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수질 보호와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저수지 주변에 방치된 생활쓰

레기와 부유물, 과도하게 자란 수초 등을 집중 수거했다. 이를 통해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농업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기여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이동호 지사장은 "맑은 물은 단지 농업의 근간일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물 환경 보호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순한 환경미화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존의 가치를 공유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향후 농촌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화 활동에 참여한 회천면 영천리 주민 A씨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주민들은 농촌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 고향 물 살리기' 운동을 통해 전국 각지의 주요 농업용수원에 대한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기반의 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날 보성지사의 활동은 그 일환으로, 물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실천적 가치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영천저수지 정화 활동은 환경 중심의 안전한 농촌을 실현하려는 농어촌공사의 지속적 노력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만나 만들어낸 성과다. 단순히 저수지를 깨끗이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일상이 깃든 물터를 지켜나가는 연대의 장이었다. 이 같은 노력이 쌓여야 농촌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사회부/박진성기자 s9611006@hanmail.net

[인쇄하기](#) [창닫기](#)

20년 지방간 해독시 마지막 기회!

현직전문의가 개발하고 엄선했던 피니톨 AST/ALT 간수치
감소 간 부스터 신성분 피니톨 최대함량

